

<글말교실 소감문>

글말교실 1:1 코칭은 저에게 있어서 '완벽한 타인'이었습니다. 과제를 위해 글을 쓰고, 제가 쓴 글을 읽고 또 읽다보면, 제가 쓴 저의 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글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고는 합니다. 그때마다 저의 글을 객관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읽어준 후, 글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'타인'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의 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, 친구나 부모님께 제가 쓴 글을 읽고 피드백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아무래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피드백을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2021년 2학기 기초교양 과목 중 '글쓰기' 과목의 과제를 하기 위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과제를 위해 칼럼을 쓰고, 그 칼럼을 읽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진 저의 글에 제 스스로는 글에 대한 부족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고,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저의 글을 평가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. 다들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짤막한 감상평을 남겨줄 뿐 어떤 부분이 좋은지,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 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지는 않았습니다. 그때 저는 글쓰기 수업 중 박진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'글말교실'이 생각났고 글말교실에 글쓰기 영역 1:1 코칭을 신청하였습니다. 교수님께서 글의 어떤 부분이 좋은 지, 어떤 부분이 글의 특성을 잘 살렸는지 등, 글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. 해당 1:1 코칭을 통해, 저는 주변의 '타인'에게는 받을 수 없었던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글말교실이라는 '완벽한 타인'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해, 저는 저의 글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

하지만, 글말교실 1:1 코칭을 받으며 아쉬운 부분 또한 존재하였습니다. '24시간 내에 승인 및 코칭 교수 지정'이라는 글말교실 운영 안내글과 달리, 실제로 코칭 교수님이 지정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코칭 교수님이 지정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과제 기한이 끝날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. 제가 처음 글말교실 1:1 코칭을 신청한 학생이기 때문에, 시스템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. 글말교실을 신청하고 그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글을 수정하여 과제를 제출하는 학생들은 과제 기한이 더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, 학생들에게 보다 빨리 코칭 교수님이 지정될 수 있도록 글말교실 운영이 개선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또한 모든 교수님께서 이러한 글말교실에 대해 인지하시고,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볍게라도 글말교실에 대해 언급해주시다면 학생들이 글말교실의 도움을 잘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저 또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글말교실을 알려주시고 추천해주셔서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으로, 개요 짜기와 같은 글쓰기의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, 글말교실 1:1 코칭의 대상이 되는 글을 완성된 글뿐만 아니라 개요 수준의 글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레 이야기해봅니다. 개요는 글의 기본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그 개요가 잘못되었다면 전체적인 글 또한 당연히 부족한 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글의 첫 단계인 개요를 짜는 것에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따라서 글말교실에서 완성된 글의 첨삭뿐만 아니라 개요 수준의 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준다면, 학생들이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의 '완벽한 타인', 1:1 코칭이 좀 더 개선되고 학생들에게 홍보되어 모든

국민대학생들의 완벽한 타인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.